

제목: 북한과 가까워진 날

DMZ 평화순례를 다녀오기 전날 이순례를 위한 안전교육이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 남한과는 먼 나라, 강원도 철원으로 출발하기 전, 버스 타고 향하는 그 시간까지도 나에게 북한은 다른 나라, 어쩌면 평생 가보지도 못할 나라였다. 오전 7시에 버스 탑승을 하고 12시에 드디어 철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김밥 한 줄을 먹고 긴 시간 버스를 타면서 속도 안 좋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막국수와 수육은 뒤집어진 뱃속을 빈틈없이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노동당사로 향했다. 들어서자마자 의문의 숫자가 써있는 시계가 맞이했고 안내자님은 남북이 분단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설명을 듣고 시계를 보니 647017 이나 되는 큰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70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땐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았던 기간이 시간 단위로 보니 정말 오랜 날들을 우리는 떨어져 살아구나 실감나게 했다.

그때 안내자분이 이 땅이 원래 북한 땅이었다는 말을 덧붙이셨고 그제서야 건물 외벽의 검은 그늘진 자국들과 종알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 장소에 와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했다.

그리고 1시 15분쯤 국경선 평화학교에 가서 정지석 박사님의 평화통일강의를 들었는데 7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분단된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하고 낯선데 그 이후에 태어난 내같은 사람들은 분단된게 오히려 익숙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 나는 정말 그 말 그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7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밀려드는 많은 생각들과 비묘한 감정을 두르 한채 2시 20분 모노레일을 타고 평화전망대에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두 눈으로 진짜 북한 철원의 땅을 볼 수 있었다. 남한과 이따저 있었고, 초록색 풀들이 우거진 같은 땅이었다. 어디에도 땅이 갈라진 흔적은 없었다. 7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와 북한은 다르다고 생각하왔던 내가 어리석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리고 4시 50이산에 도착했다. 산을 오르기 전 다 같이 등고랴게 둘러 서서 마음을 정진하게 가다듬고, 산을 올랐다. 입구를 떠난지 얼마되지 않아 살아생전 처음으로 송충이도 보았다. 전에 올랐던 산들과는 다르게 길이 정말 경사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갖 중간에도 정말 쉼터처럼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만 수천번 되네었다. 두들음이 온 끝에 정상에 섰을 땐, 땀이 비뚤이 쏟아져서 숨을 고르게 바꿨다. 왜 모든 걸 다 싶은 생각이 들려던 철나 같이 올라오신 큐레이터분께서 방향을 가리키며 우리가 차를 타고 왔던 길이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노동당사, 평화전망대의 위치를 알려주셨다. 그 모든곳이 한없이 작게 보였다. 그리고 북한 쪽을 가리키시며 저곳에서도 지금 우리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자마자 우리는 가지고 올라왔던

특수 흰반도가 새겨진 깃발을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는 북한분들의 반응을 장난감아 흉내내기도 했다.

그리고 4시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 하룻동안 있었던 일들과 보았던 것들을 되짚어보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순례를 이 순례를 가기 전 북한은 내게 별로 나와는 관계없는 나라, 언제 전쟁을 벌이게 될 지 모르는 두려운 나라였다. 하지만 이순례를 갔다와서는 북한은 티미상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아니었다. 북한을 직접 보고 가까이 다가가보니 우리와 같고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북한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기뻐했다.